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인고 견딘 힘은 ‘초의 편지·茶·불경’

유배지를 벗어나고 싶었던 추사의 열망은 1849년에야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가 제주로 유배될 초기까지만 해도 9년이나 제주도에 머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당대의 권세가였던 김조순의 아들 김유근(1785~1840)이 그와 뜻이 통했던 인물이었다고, 그와 절친했던 권문인의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의 인연은 무심한 것인가. 그토록 기대했던 김유근이 1840년 12월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로 인한 그의 상실감은 한동안 그의 마음을 괴롭혔으리라. 아! 세월의 인고를 견딘 추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는 바로 차와 불경이다. 더욱 그를 위로했던 것은 초의의 편지와 차였다. 아울러 간간히 찾아오는 그의 제자들과 승려들, 가족들의 소식도 더할 나위없는 청량제가 되었다. 호의와 초의는 추사의 오랜 벗. 1846년 정월에 보낸 그의 편지엔 따뜻한 훈풍처럼 그의 언 가슴을 녹일 희소식을 들었던 것일까. 늦봄쯤이면 해배될 것이란다. 한껏 부풀었던 추사의 기대는 호의와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 가득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글씨 '명선'. 간송미술관 소장

元正 戒履分律增吉 慰荷萬千 俗人賴師謹祝 聲之力 身意俱得清福 可喜可喜 但客懷有時悶苦 歸期似在 晚春聞耳 不式 丙午 正月 四日 滷便

추사가 초의와 호의에게 이 편지를 보내기 전, 1845년 5월, 집으로 보낸 그의 편지에 '제주목사가 내직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모로 다행이다. 임금께서 지척에 계시고,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어 (내가)한번 회생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 더욱 감축할 일이다.' 라고 했다. 당시 제주목사는 이원조일 것이라 짐작된다. 이원조는 초의와도 교유했던 인물로, 추사와 가까운 사이였다. 따라서

이원조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내직의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임금에게 자신의 무고를 변론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듯하다. 실제 이원조가 추사의 해배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846년 정월 추사의 해배 논의는 본격화되어 거의 해배가 결정되었던 것일까. 그가 '유배에서 풀려 돌아갈 날이 아마 늦은 봄쯤이 될 듯' 하다고 한 것은 이미 해배의 희소식을 들었던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 편지는 새해의 첫 날을 보낸 후, 5일 만에 보낸 편지이다. 새해가 되었지만 이 의미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다'는 것이다. 누구나 새해는 새로운 계획과 희망으로 부른다. 하지만 제주 유배지에서 그가 느낀 담담한 새해를 새롭게 일깨워 준 것은 바로 초의였다. 그가 '스님의 편지를 받고, 곧 정월이 되었음을 인정' 했다는 대목은 이것을 알게 한다. 한편 객지에서 새해를 맞았지만 그의 마음은 '때로 답답하고 고통스럽다'고 하였다. 실로 인간적인 그의 속내가 또렷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초의처럼 뜻을 나는 벗을 염려하는 그의 정 깊은 배려는 '수행의 자취와 분율(分律)이 더욱 같하다니 천만번 위로가 됩니다'는 대목에서 이들의 따뜻한 우정을 느낄 수 있다. 호의는 완호의 제자로, 초의의 형이다. 완호의 제자 중에 삼의(三衣)라는 뛰어난 제자가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호의, 하의 초의였다. 이들은 모두 추사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특히 한통의 편지에 수선사가 들인 사례는 추사의 이 편지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편지를 쓰는 형식 중에 하나이다.



박동춘(동아시아 문화연구소장)

호의, 초의스님들께 새해가 바뀌는 것을 기다림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는데, 스님의 편지를 받고, 곧 정월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수행의 자취와 분율(分律)이 더욱 같하다니 천만번 위로가 됩니다. 나는 그대들이 축원하는 힘에 힘입어 몸과 마음이 모두 맑고 복됨을 얻었으니 복되고 복됩니다. 다만 객의 마음은 때로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유배에서 풀려 돌아갈 날이 아마 늦은 봄쯤이 될 듯합니다. 이만 정음(1846)년 정월 4일 낙편 (編師 草師 僉尊 歲新翹歌 卽於語外 承梵 誠 就認

# “소외된 이웃 돌봄은 수행이며 자비행”

지원 스님 (위드아시아 이사장)

“불교의 가르침은 소외된 인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함께 가야 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돌보지 않는 표교란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국제구호NGO인 위드아시아(with ASIA)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첫 마디로 이렇게 화두를 던졌다.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장으로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북한 어린이 인도적 지원 사업은 물론이러니와 합천 평화의집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소수민족 절대빈곤층 국제구호 사업과, 국내 소외 계층 지원, 대북 사업까지 스님의 활동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이러한 말은 더 크게 다가왔다.

부산 문수사에 주석하는 스님은 3월 12일 심양에서 조별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한 사전회의로 서울로 올라온 상태였다.

스님을 만나며 스님이 NGO단체인 위드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풀렸다.

을 보였습니다.”

17세가 되던 해 스님은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 당시 강원에서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까지 졸업한 도반들이 상당수 있었다. 스님은 통도사를 나와 법어사로 향했다. 여기서 부산 문수사 덕암 스님을 만나게 된다. 덕암 스님은 경보 스님의 만상좌로 일본 유학까지 다녀 온 실력과 스님이었다.

“스님의 영어, 일어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장 하나 해석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는데, 스님은 한눈에 몇 줄씩을 읽어 가셨습니다.”

부산 문수사 일을 거들며 덕암 스님으로부터 영어와 수학을 배운 후 고등학교와 동국대 신학과를 졸업했다. 후에, 덕암 스님은 지원 스님을 법상좌로 받아들였고, 문수사를 지원 스님에게 맡겼다.

“스님께서 시간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어요. 새벽 세 시면 어김없이 법당에 나오셔서 예불 하시고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교학은 물론 외전 공부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 가져 배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스님은 점차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눈이 갔다. 평생 수행 정진을 할 것 같았던 스님이 인권, 반핵, 평화 운동가로 나서게 된 것이 바로 이때였다.

동진 출가... 불가와 인연의 시작 먼저 스님에게 출가연을 여쭙었다. 가문의 장손이었던 스님은 12세의 나이에 송광사 원로이신 법흥 스님의 상좌로 출가한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집안에 출가한 이들이 많았으며, 어려서부터 출가한 친척들이 자주 원호 스님의 일대기 등 스님들의 구도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7촌 누이가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스님의 '진짜 공부는 부처님께서 삶의 고통뿐만 아니라 못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출가한 원력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출가의 원이 생겼어요. 그 날로 위에 누님의 50원짜리 두장을 쥐고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동네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포항 보경사로 향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로 보경사에서는 스님을 스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은 부처님 열반하신 2월 8일이었습니다. 낙담할 때였어요. 공양주 보살께서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이 되는 것 만큼 큰 공덕을 쌓는 것이 없다. 출가하기로 잘 생각했다'고요. 그 공양주 보살이 절에서 며칠 기거하다보면 절에서도 받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용기가 났죠.”

스님은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3일간을 마루에서 잠을 잤다. 결국 스님은 사찰에 남게 됐다. 스님은 그때부터 나무도 하고, 밭도 지으며 일종의 행사 생활을 했다.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해냈다.

통도사와 범어사에서 공부 스님은 1969년 송광사 법흥 스님을 만나 정식으로 출가했다. 지원 스님은 지금도 스님을 오늘에 있게 한 힘이 은사스님의 한결같은 수행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님께서 시간을 허투루 쓰시는 법이 없었어요.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은사 스님과 헤어져야 했다. 법흥 스님이 공부 차 향곡 스님이 머물고 있던 표관암사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도 은사 스님의 뜻에 따라 통도사로 발길을 돌렸다. 어린 그의 손엔 편지 한 장만 쥐어 주었울 뿐이다. 통도사에 주석하고 있던 흥법 스님에게 전하는 편지 한 통이었다. 흥법 스님은 한국전쟁 이후 수행진과 표교를 이끌었던 선지식이다. 세남 49세의 나이로 입적했지만 지금도 스님을 기리는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스님은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할 동안에는 통합종단 조계종 중앙총회 초대회장 이후 2·3대까지 역임하고, 통도사법장도 지낸 벽안 스님을 시봉하기도 했다.

“그 때 당시 노스님께서 하신 말은 아직도 저의 삶의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출가한 이가 다른 이에게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님은 스스로 바느질하고, 방 도배를 하는 등 자질구레한 일도 직접 하며 그 모습

법흥 스님 은사로 동진 출가 어려운 이웃 돌보는 원력 세워 진관 스님 만나며 사회운동 전개 참여불교운동본부서 북한 구호 활동

2011년 국제구호 위드아시아 창립 캄보디아·미얀마 등지 교육불사 합천 평화의 집 운영 지속 지원 “소외계층 보살핌이 부처님 가르침”

“불교를 공부할수록, 불교가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점점 무엇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더군요. 그러던 차에 사회운동에 한창이던 진관 스님과 만나며 함께 나서게 됐습니다.”

현재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진관 스님은 1980년대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교계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스님은 진관 스님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며 인권운동에 앞장섰다. 사회의 그늘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도 이 때 깨달았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스님은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2004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맡으며 대북활동에도 나서게 된다.

“사회부장을 맡으며 금강산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북한 지역을 들락거리며 보니, 그 실상이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어려운 이웃들보다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어요.”

2004년 4월 북한 통천역 열차 폭발사고 복구사업을 지원을 계기로 부산 지역 스님들을 비롯한 사회운동가 스님들은 뜻을 모았다. 바로 참여불교운동본부의 탄생이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조선족 어린이 장학금 지원사업,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 등을 펼쳤다. 특히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이나버다 운동을 통해 '북녘어린이에게 신발 보내기 운동'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업을 진행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당시 감로사 주지 혜충 스님, 여역선원 선원장 정영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등이 참여했다.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중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흙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중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중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인든 사단법인인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미얀마 아이들에게 직접 강연하는 지원 스님



캄보디아 세인아디나 사원 공부방 어린이들과 찍은 사진